

“인공태양 품은 글로벌 에너지 첨단과학 수도 도약”

병오년 새해설계



윤병태 나주시장

“인공태양의 도시, 글로벌 에너지 수도 나주를 통해 시민 여러분이 체감되는 실질적 도약의 해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성장·시민 삶의 질 향상 박차

푸드테크 등 미래 농생명산업 육성

체류형 관광벨트·정주여건 개선도

윤병태 나주시장은 5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천403억원의 국비를 바탕으로 도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끌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올해 시정 최우선 과제로 지속 가능한 농생명산업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푸드업사 이클링 등 신산업 기반을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천여명으로 확대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나주배’, ‘나주들에 찬한우’ 등 대표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성을 두텁게 할 방침이다.

특히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단가 인상과 운영 일수 확대, 농작업용 편의 의자 전면 지원 등 농업인 복지 향상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

나주를 인공태양 품은 글로벌 에너지 첨단과학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1조2천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2027년부터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남도와 협력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2028년까지 부지 확보와 기반 시설 조성을 마무리해 초기 착공을 이끌어내고, 연관 기업 유치를 통해 핵융합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가 에너지산단과 노안 일반산단을 차세대 전력망 핵심 공급기지로 육성하고, RE100 산단과 연계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고전력 반도체 국산화 기반 마련 등 미래 에너지 신산업 선점에도 박차를 가한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500만 관광시대’ 개막을 위해 지난해 52만명이 다녀간 ‘나주영산강축제’의 성공을 발판으로 축제 경쟁력을 높이고, 영산강정원,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읍성권 문화유산 복원 등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벨트를 완성할 계획이다.

올해를 ‘2026년 나주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숙박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한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복합문화체육센터와 꿈자

람센터 운영, 빛가람호수공원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을 2030년까지 완공해 에너지 교육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고 IB프로그램 운영, 켄텍 에너지재교육원 신설, (가칭) 평생초등학교 신설 등을 추진해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다진다.

이 밖에도 청년 무상임대주택 확대, 청년 창업 공간 지원 등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고, 출생 기본소득 도입과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전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길은 걷는 이가 많을수록 넓어진다는 말처럼, 시민의 참여가 나주의 미래를 기운다”며 “인공태양의 도시, 글로벌 에너지 수도 나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원론적 구호 대신 ‘실행 설계도’ 내놔야”

정태관 대표, 시장 출마 예정자에 질의 ‘목포 거점도시 도약’ 과제·순위 등 요구

정태관(사진) 목포문화연대 대표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목포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을 향해 북적한 물질구를 던졌다.

5일 정 대표에 따르면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시장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10대 공개 질의’를 발표하며, 현재의 선거 국면이 구체성 없는 ‘말의 성찬’에 그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한 RE100 국가산업단지, 3GW급 AI 데이터센터,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등 인근 지자체들은 정부 발표와 동시에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며 “하지만 목포시는 1년 가까운 행정 공백 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후보자들이 즐겨 쓰는 ‘거점도시’라는 프레임에 대해 “광주·해남 고속도로가 뚫리고 인근에 최첨단 AI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해서 목포가 자동으로 그 혜택을 누리는 중심지가 되지는 않으며 이는 위험한 착각이다”고 경고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정 대표는 “국제 자본과 인재가 머물 수 있는 특급 호텔, 컨벤션센터, 교통망 등 ‘글로벌 정주 여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목포의 기능은 오히려 인근 신도시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며 “목포를 스쳐 가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는 K-글로컬 도시’로 만들 구체적인 전략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정 대표는 후보자들에게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할 우선 과제와 그 우선 순위 ▲RE100 국가산업단지·AI 데이터센터·재생에너지·해상풍력 등 초대형 프로젝트 속에서 목포의 구체적 역할 ▲항만·해양·관광·공공 기능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거점도시 목포’의 구조 등 10 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은 약 5개월에 불과하고, 당선 후 인수인계까지 고려하면 2026년 한 해를 준비 없이 허려보낼 공산이 크다”며 “정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다. 원론적 구호가 아닌, 즉시 실행 가능한 설계도를 가진 후보만이 목표를 진짜 거점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신안군, ‘디지털신안문화대전’ 개통

지리·역사·문화유산·민속 등 9개 분야

신안군은 5일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력해 군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디지털신안문화대전’ 누리집을 지난 2일부터 공식 개통해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착수해 전국 120번째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지리, 역사, 문화유산, 민속 등 9개 분야를 총망라했다.

지역 연구자 100여명이 참여해 1천300여개 항목과 2천829건의 사진, 동영상 자료를 디

지털화했으며 PC와 모바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1도 1뮤지엄’, 유엔 최우수 관광마을 ‘퍼플섬’, 태양광·해상풍력 주민 이익 공유 모델 등 신안만의 특색 있는 현재 모습도 별도의 기획 항목으로 생생하게 담아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1천28개 섬의 다채로운 볼거리와 때 묻지 않은 자연, 문화를 디지털로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영광군, 농어촌민박 79곳 소화기 배부

영광군은 “최근 영광소방서와 협동으로 농어촌민박 79곳을 대상으로 분말 소화기를 배부하고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민박 운영자가 지정 장소를 방문해 소화기를 수령하고 교육을 받는 ‘집합형’과, 교통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사업

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으로 나눠 진행됐다.

군은 소화기 전달과 함께 겨울철 화재 예방 요령 및 농어촌민박 사업자 준수사항을 안내했으며, 영광소방서는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발생 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완도사랑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해 운영 중이다.

/영광=김동규기자



강진군은 최근 강진고등학교에서 고3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강진원 군수(가운데)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고3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5개학교 진로·진학 준비금 첫 지급

1인당 50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원

강진군이 고3 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사업을 첫 시행한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미래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한다.

관련 조례에 따라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강진군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강진고, 생명과학고, 병영고, 성전고, 덕수학교 등 5개 학교가 해당된다. 주소지 기준일은 2025년 12월3

1일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진학 준비금은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제공되며, 정책발행 상품권 지급을 통해 강진 관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신청은 2026년 1월12~2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는 신청 학생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야 학생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이 신청 학생 명의가 아닌 경우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신청 후, 학교 재학 및 주소 확인을 거쳐 1월 말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강진군은 신청 편의를 위해 각

고등학교를 방문,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진학 지원금 신청 안내와 사전 현장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진학 준비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고3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있는 미중물”이라며 “강진군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이번 진로·진학준비금 지급 사업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폭넓은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2026년에 군비 27억원, 장학재단 8억원 등 총 35억원의 예산으로 중학생 해외역사문화탐방, 유품인재 육성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정영록 기자

함평군, 농업대학·신규농업인 교육생 모집

30일까지 호박·청년반 등 4개 과정

함평군이 2026년을 ‘농업 도약의 해’로 삼고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예 인력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함평군은 5일 “미래 농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이날부터 ‘2026년도 농업인 교육과정’ 수강생을 본격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현장성’과 ‘전문성’ 강화

로, 군은 우선 지역 특화작물 육성과 젊은 피수 험을 위해 ‘함평농업대학’을 운영한다.

과정은 ▲호박반 ▲청년농업인반 등 2개로 구성됐으며, 각 40명씩 총 80명을 선발한다. 오는 30일까지 신청 가능한 이 과정은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실습 비중을 대폭 늘려 교육생들이 작목별 전문 기술과 경영 능력을 동시에 습득하도록 설계됐다.

귀농·귀촌인과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돋는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군은 다음 달 6

일까지 신규 농업인 과정 교육생 50명을 모집해 작물 재배 기초부터 농업 경영의 이해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선도 농업인(멘토)과 신규 농업인(멘티)을 1대1로 연결해 실제 영농 현장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는 ‘멘토·멘티 현장실습 교육’을 운영, 초보 농업인들의 시험착오를 줄일 계획이다. 해당 과정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함평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완도사랑상품권 모바일 캐시백 15% ‘상향’

월 구매 70만원·연 700만원 확대

완도군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사진)’의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완도사랑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해 운영 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모바일 상품권 혜택 강화다.

기존 10%였던 적립률(캐시백)을 15%로 올렸다.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 시 할인 금액만큼 즉시 캐시백으로 적립된다.

다면,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지류(종이)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할인 방식을 유지한다. 지류 상품권은 농·수·신협 등 관내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개인 구매 한도 역시 낙관해졌다. 월 구매 한

도는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연간 한도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혜택 확대가 가계 안정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축제와 연계한 특별 적립 이벤트 등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